

특수교육대상자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은 지난 11일, '특수교육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 실현과 특수교육 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전남특수교육 2019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전남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22개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와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특수학교 교감과 부장교사 등 80여명이 참석

전남도교육청, 전남특수교육 2019 설명회 개최 진로·직업교육·문화예술체육교육·인권보호

화 등 특수교육의 중점 과제를 설명하고 전남특수교육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경미 교육진흥과장은 "여러분의 도움과 열정으로 우리 전남은 전국장애학생진로 드림페스티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등 다양한 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 외에 진로·직업교육과 문화예술체육교육 및 인권보호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도교육청은 2018년 10월에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직업훈련 전문기관에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



"아름다운 말로 소통하는 법 배웠어요"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

전남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이정화)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초등학교 13개교 4~5학년 3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겨울독서·토론포럼을 운영하였다. '말의 힘! 소통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목대장' 등 선정도서 3권을 읽고 ▲발문하기, ▲시사토론, ▲두마음 토론 ▲찬반대립 토론 등 다양한 토론활동이 이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주제곡 만들기, ▲가치카드 만들기, ▲독서토론 수업 ▲북아트 만들기 등을 통해 학생들의 큰 호응

을 얻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5일 동안 독서 토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여 32명 모두가 발표력과 자신감이 생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여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한 자세도 배우게 되었다. 겨울독서·토론포럼에 참여한 한 학생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토론이 이제는 재미가 생겼고 평상시 친구들과 나쁜 말을 한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수업을 통해 진실을 말하는 좋은 방법, 친구에게 상처주는 말 배웠으니 앞으로는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정환 기자

광주양동초, 졸업생 전원 30만원씩 장학금

선배들 장학재단 만들어 후배들 졸업 축하 마음 담아

광주양동초등학교(교장 박봉순)는 8일 본교 강당에서 개최된 2018학년도 제 59회 졸업장 수여식에서 졸업생 전원에게 3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광주양동초등학교는 1955년 개교 이래, 23,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규모학교였으나 도심 공공화현상으로 인한 학생 감소로 현재 학생수 70명인 소규모학교이다.

40여년전 광주양동초등학교에서 교단의 첫 발을 내딛었던 박봉순 교장은 부임 이후 학교와 학생들에게 남다른 애착을 갖고 동문회를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이에 동문 선배들은 장학재단을 만들어 모교 발전과 후배사랑을 실천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동문 선배들은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채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영된 '아침 식당'에 빵, 과일, 음료 등의 음식을 제공하여 후배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 장학금은 광주양동초등학교 20여명의 동문 선배들이 만든 장학재단에서 후배들의 졸업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마련된 것



로, 광주양동초등학교 한 동문 선배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습에 대견함을 느꼈고, 후배들을 위한 뜻깊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 보람이 느껴진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봉순 교장은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밝고 씩씩하게 자라준 우리 광주양동초등학교 졸업생들이 꿈을 펼치며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고 장학금이 아이들의 교육에 뜻깊게 쓰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진도교육지원청, '따끈따끈 베이커리 교실' 운영

진도교육지원청(교육장 민의식)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내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겨울방학 프로그램 '따끈따끈 베이커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1주차에는 소보로빵, 소세지빵, 생크림 케이크, 바나나 머핀, 모카빵 등을 만들며 제과·제빵 체험을 하고 2주차에는 초코송이, 만다랑 초콜릿, 파베초콜릿, 롤리팝 초콜릿, 타르트 등을 만들며 초콜릿 공예 체험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는 진로 개발 역량의 기초 소양을 배양하고, 중·고등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는 직업의식 및 직업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형제·자매와 함께 사회적, 협동성,

진서의식을 함양하며 형제간의 우애를 다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은 "평소에 빵을 좋아하는데, 직접 만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번 겨울 방학이 즐겁다."라고 기뻐했다. 또한 참가 학생의 학부모는 "초·중·고 학생들이 서로 도와가며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도 방학 중 프로그램에 아이를 꼭 참여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최원식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방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진로·직업과 관련된 학생의 소질과 특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방학 중 가족의 보호 부담을 경감하고, 진로직업교육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순천대 '지역우수기업 탐방후기경진대회' 금상

순천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성치남)는 지난 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8 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지역 우수기업 탐방후기 경진대회에서 무역학전공 학생들이 금상을 수상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청년 인재와 지역 우수기업 간 교류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취업 문화를 개선하고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 16개 지역 테크노파크가 참여한다.

특히 지역 우수기업 탐방후기 경진대회는 16개 광역자치체별 지역 심의를 거쳐 추천한 팀별 기업 탐방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로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총 80여 건의 보고서가 지역 심의를 거쳐 추천되어 열린 경쟁을 벌였다.

금상을 수상한 순천대 '희망탐정(무역학전공 나윤석·정예린·안동균)' 팀은 중소기업인 '삼우에코'를 방문해 공장 견학과 인사담당자 면

담, 설문 조사 등을 실행하고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기업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를 준비했다.

'희망탐정' 팀은 순천대학교와 문화의 거리 등 순천시 일대에서 학생과 시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홍보 특강과 홍보 영상, 홍보 게시물 부착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며 지역과 동반성장하는 '삼우에코'의 강점을 알린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순천대는 앞서 2017년 희망이음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도 전국 대상과 은상, 동상,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낸 바 있다.

정재성 인력개발원 원장은 "희망이음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의 연이은 수상은 학생들이 진로탐색과 지역발전에 비전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전한 결과"라며 "올해도 전남 테크노파크와 연계한 기업탐방에서 학생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멘토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광산 010-5604-6533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송하 010-8620-1925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임동 010-2656-4543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양산 010-2646-3205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오치 010-7532-3313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북구 010-4601-2080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동운 018-611-7751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용봉 010-4601-2080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두암 010-2684-6091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10-9578-5900		
무안 010-5234-2313	장성 010-5287-7711		
보성 061-853-9125	장흥 010-6234-6226		
순천 010-2300-9083	진도 010-3081-5203		
광양 010-5604-6981	함평 010-3625-3160		
여수 010-6655-8503	화순 010-2077-6464		
영광 010-3611-3081	곡성 010-3615-1088		

혁신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